

일본 경제 동향 (2014. 7월)

“완만한 경기회복세와 해외사업 지원전략”

< 목 차 >

I . 일본 경제 지표	1
II 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	2
1. 소비세인상 영향 감소에도 경가지표는 답보상태	2
2. 6월 무역적자 축소	7
3. 고주가·저금리·엔저	10
4. 해외직접투자, 증가로 반전	11
III . 일본의 주요 정책	13
1. 해외사업 지원전략	13
IV . 한일 경제관계 분석	16
1. 대일무역적자 확대로 반전	16
2. 일본의 대한투자, 상대적 부진	19
3.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 감소로 반전	20
V . 참고 자료	21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	21
2.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	23

I. 일본 경제 지표

< 일본경제 주요지표 >

구 분	2012	2013	2013		2014	2014		
			3/4	4/4	1/4	4월	5월	6월
GDP증가율(연율,%)	1.4	1.6	1.3	0.3	6.7(p)	-		
경기동향지수(2010=100)	-	-	108.8	111.5	-	111.1	111.3	-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0.6	△0.8	1.7	1.9	2.9	△2.8	0.7	-
소비자물가	△0.1	0.4	0.4	0.3	0.2	2.2	0.4	-
상승율(%)								
전년동기비	△0.1	0.4	0.7	1.1	1.3	3.2	3.4	-
실업율(%)	4.3	4.0	4.0	3.9	3.6	3.6	3.5	-
수출(조엔)	63.7	69.8	17.8	18.1	17.5	6.1	5.6	5.9
수입(조엔)	70.7	81.3	20.6	21.8	22.4	6.9	6.5	6.8
무역수지(조엔)	△8.4	△11.5	△2.8	△3.7	△5.0	△0.8	△0.9	△0.8
경상수지(조엔)	4.8	3.3	1.4	△1.4	△0.9	0.2	0.5	-
해외직접투자(조엔)	9.8	13.2	4.7	3.1	2.6	0.6	0.7	-
환율	달러	80.1	97.7	98.9	100.5	102.8	102.6	101.8
	원화(100엔)	1,413	1,123	1,139	1,035.7	1,039	1,019	1,007
금리(10년물,%)	0.78	0.72	0.77	0.64	0.625	0.61	0.59	0.59
주가(닛케이)	9,612	13,651	14,128	15,388	14,958	14,475	14,343	15,131

주: (p)는 2차 속보치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□ (경기판단) 소비세인상의 영향은 감소되고 있으나 경기지표는 답보상태

○ '14.5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1.3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

□ (소비자물가) 5월 전월대비 상승률은 둔화

○ '14.5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.4% 상승

□ (무역수지) 6월 무역적자폭 축소

○ '14.6월 무역수지적자는 0.8조 엔으로 전월보다 0.1조 엔 축소

□ (환율) '14.6월 대미달러 환율은 전월보다 엔저

○ '14.6월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평균치는 102.1엔으로 전월대비 0.3% 엔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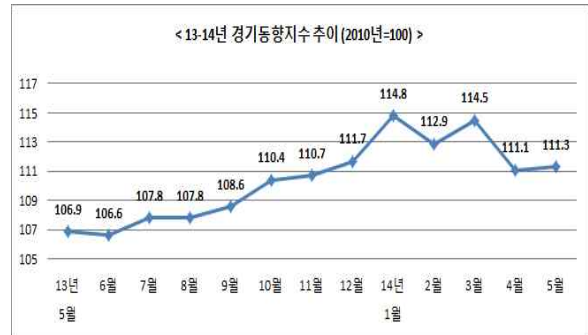
* '14.6월 엔화의 대원화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99원으로 0.8% 엔저·원고

Ⅱ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1. 소비세인상 영향 감소에도 경기지표는 답보상태

□ (총 합)

- 일본정부는 소비세인상에 의한 소비감소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들어, 월례 경제보고에서 7개월 만에 경기의 기조판단을 상향조정
- 그러나 경기동향지수로 본 경기기조판단에 대해서는 4월과 마찬가지로 답보상태를 유지
- ‘14.5월 일치지수로 본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1.3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
- 선행지수는 104.7로 전월보다 1.7p 하락, 경기가 악화



자료 : 내각부

□ (전 망)

- 일본경제는 2분기 마이너스성장을 거쳐 3분기 이후에는 성장경로를 회복할 전망
- 당분간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영향으로 경기가 약세를 보일 것이나, 서서히 그 영향이 감소하고 각종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,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
- 그러나, 가수요의 반동영향에 의한 감소가 4월을 저점으로 완화될 전망이다,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과 노동수급의 팽박을 배경으로 한 임금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3분기에는 개인소비가 증가로 반전될 가능성이 큼

□ (시사점)

-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직접적인 경기부양효과보다는 민간의 투자·소비심리를 높임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경기회복을 유도하는 데 있음

□ (GDP) 3분기 이후 정상적인 성장경로 회복전망

- 2014년 1분기 실질GDP성장률(2차 속보치)은 전기 대비 1.6%, 연율 6.7%로 5월에 발표한 1차 속보치에 비하여 각각 0.1%p 및 0.8%p 상향 수정됨
 - 4월 소비세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의 투자가 경기를 끌어올린 것이 상향수정의 주된 요인
 - 소비도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 영향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, 연율로는 10.8%로 2011년 3분기 이후 최대 성장률을 기록
 - 내수와 외수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1.9%p 및 -0.3%p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차 속보치(1.7%)에 비하여 증가한 반면, 외수의 기여도는 1차 속보치와 동일
- 일본경제는 2분기 마이너스성장을 거쳐 3분기 이후 성장경로를 회복할 전망
 - 2분기에는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공공투자, 수입 감소에 의한 외수의 증가가 성장가속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, 소비의 감소로 7분기만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
 - 그러나 가수요의 반동영향에 의한 감소가 4월을 저점으로 완화될 전망이다,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과 노동수급의 팽박을 배경으로 한 임금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3분기에는 개인소비가 증가로 반전될 가능성이 큼
 - 다만 일본 내각부는 가수요의 반동영향에 의한 감소폭이 당초 상정한 것보다 크고 수출의 회복이 더딘 점을 이유로, 2014년도 실질GDP를 전망치를 1.2%로 당초 1.4%보다 하향수정
 - 그렇더라도 정부의 전망치는 민간싱크탱크의 전망치 평균 0.85%보다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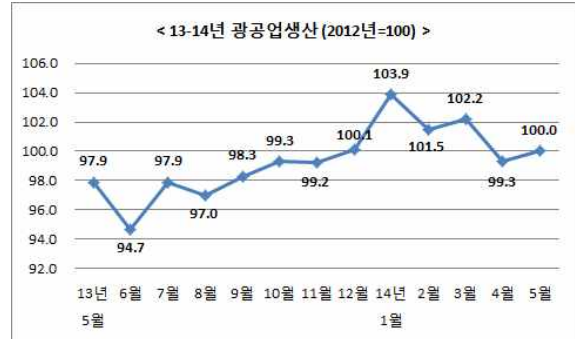
< 일본정부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 >

	GDP성장률	개인소비	설비투자	수출 (상품·서비스)	수입 (상품·서비스)
2014년 1-3월(실적,전기비)	1.6%	2.2%	7.6%	6.0%	6.3%
2014년도(전망)	1.2%	0.3%	4.9%	5.3%	3.7%
2015년도(전망)	1.4%	1.9%	4.7%	-	-

□ (광공업생산) 소비세인상의 영향 가시지 않은 가운데 0.7% 증가

○ '14.5월 광공업생산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영향 지속으로 0.7% 증가에 그침

- 전체 15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증가한 가운데, 자동차부품 등 수송기계와 섬유공업이 1.9%의 높은 증가를 보임
- 반면 감소한 업종은 7개 업종으로, 정보통신기계공업과 화학공업이 각각 9.3% 및 4.5%의 큰 폭의 감소를 보임



자료: 경제산업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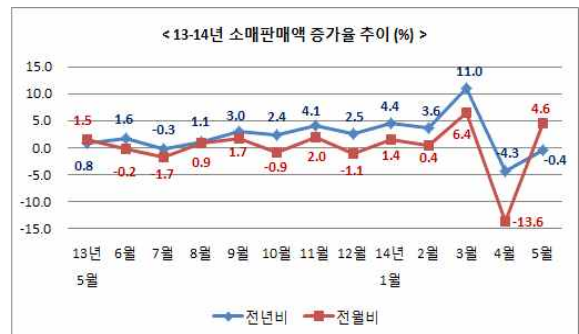
○ 당분간은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남아있을 것이나 점차 회복될 전망

-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, 6월에는 0.7% 감소, 6월에는 1.5% 증가 예상

□ (소 비) 소비세 인상의 영향 완화로 회복세

○ '14.5월 소매업판매액은 전월 대비 4.6% 증가

- 그 배경으로 실질 고용자 소득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, 소비세율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영향이 일부에서 완화되고 있고, 소비자 마인드에도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
-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5월 소비종합지수도 전월비 1.3% 증가, 2개월 만에 개선



자료: 경제산업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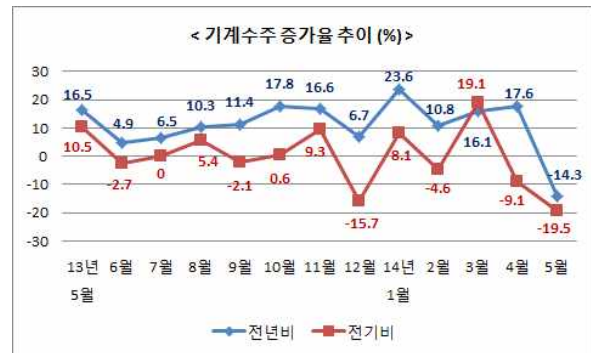
○ 당분간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영향이 남아있을 것이나, 고용·소득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

-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제 3차 산업 활동도 소비세 인상영향으로 부진을 거듭한 후 회복될 전망

□ (설비투자) 5월에도 기계수주액은 감소했으나 앞으로 증가 예상

○ ‘14.5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(선박,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)이 전월 대비 19.5% 감소

- 제조업은 18.6% 감소,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비제조업은 17.8% 감소
- 이에 따라 일본 내각부는 기계수주에 대한 기조판단을 담보상태에 있다고 하향수정



자료: 내각부

○ 그러나 앞으로 기업 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설비투자는 증가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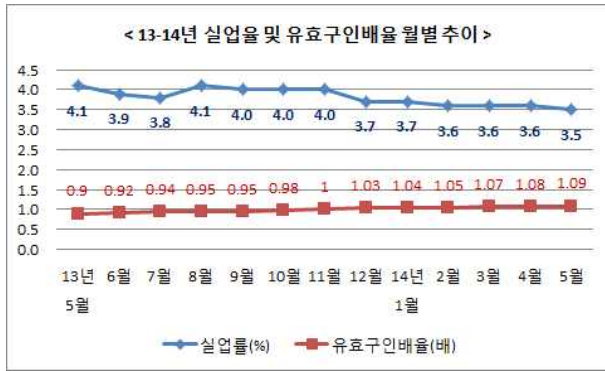
- 일본은행 단칸(短観 : 2014년 6월 조사)에 의하면, 2014년도 설비투자계획이 제조업에서는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, 설비과잉감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나 개선되고 있음
-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에서도 대기업들의 2014년도 설비투자계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□ (고 용) 22년 만에 최고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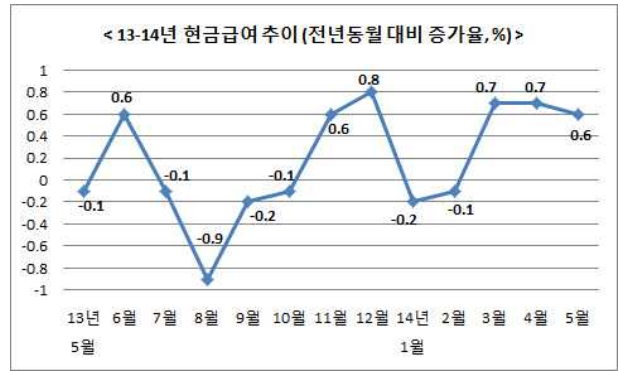
○ ‘14.5월 완전실업률은 3.5%까지 저하, 16년 5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

○ 그 배후에는 고용수급상황의 팽박이 임금 상승을 통하여 가일층 물가를 상승시키는 구도가 형성

- 5월의 유효구인배율이 1.09배로 전월보다 0.01p 상승함으로써 18개월 연속 상승, 22년 만에 최고수준 기록
- 임금은 현금급여총액이 전월대비로는 0.1%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0.6% 상승, 정기급여는 전월대비 0.1% 증가
- 외식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임금이 계속상승
-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을 상품가격에 전가하는 경우 상승일로에 있는 물가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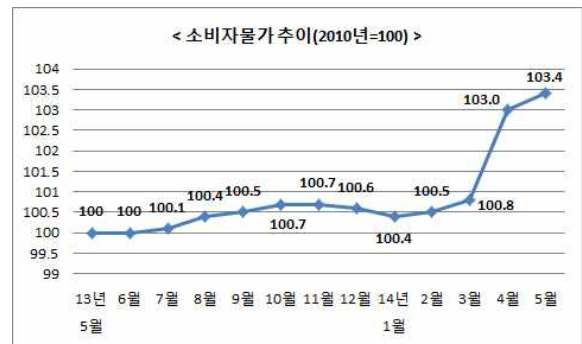
자료: 후생노동성



자료: 후생노동성

□ (소비자물가) 소비세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전월과 같은 0.1% 상승

- ‘14.5월 소비자물가상승률(생선·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은 전월 대비 0.4%로 전월의 2.2%에서 크게 둔화
 -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3.4% 상승, 12개월 연속 상승함으로써 1982년 4월(3.5%)이후 3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
- 일본 내각부에 의하면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전월대비로 0.1%로 4월과 같은 수준
 - 이는 5월에는 소비세인상에 의한 물가상승효과가 4월보다도 컸음을 반영
- 에너지와 내구소비재가 10%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한편, 서비스 분야는 1.8% 상승
- 당분간 소비세 인상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상승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



자료: 총무성

2. 6월 무역적자 축소

□ (총 합) ‘14.6월 무역적자는 0.8조 엔으로 5월보다 0.1조 엔 축소

- ‘14.6월 무역수지는 2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전월의 0.9조 엔에서 0.8조 엔으로 0.1조엔 축소
- 무역적자가 축소된 데는 수출이 전월의 큰 폭의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로 반전된 것이 주된 원인
 -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3,699억 엔에서 3,720억 엔으로 확대된 한편,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3,995억 엔에서 4,778억 엔으로 확대

< 2014년 6월 일본의 수출입 (단위: 조엔, %) >

	2014.5월			2014.6월			2014.상반기		
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수 출	5.6	-2.7	-7.6	5.9	-2.0	5.4	35.0	3.2	-2.2
수 입	6.5	-3.6	-5.3	6.8	8.4	4.6	42.3	10.0	0.4
무역수지	-0.9	-0.1	0.1	-0.8	0.6	0.1	-7.6	2.8	0.9

주 : 수출, 수입의 증감은 %, 무역수지의 증감은 조엔

자료 : 일본 재무성

- 한편, 2014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7.6조 엔 적자로 전기보다 적자폭이 0.9조 엔 확대
 - 반기 단위로 무역적자는 과거 최대
 -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기의 27,541억 엔에서 29,211억 엔으로 확대된 반면, 對 미국 흑자는 전기의 31,738억 엔에서 27,851억 엔으로 축소

□ (수 출) 금액, 수량 모두 증가

- ‘14.6월 수출은 5월보다 5.4% 증가, 전월의 7.6% 감소에서 크게 반전
 - 수출수량도 전월보다 5.8% 증가

-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, 철강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자동차부품, 과학광학기기 순으로, 전월과 비교하여 플라스틱 대신에 과학광학기기가 포함
- 5대 수출품목 모두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, 자동차의 수출이 21.1% 증가로 증가폭이 가장 큼
- 주요 수출 지역·국가에 대한 수출은 對 EU수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한 가운데, 對아세안 수출증가율이 5.3%로 가장 높음
- 한편, 2014년 상반기 수출은 35조엔으로 전기대비로는 2.2% 감소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3.2% 증가
- 품목별로는 감소한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부품의 수출 감소폭이 0.7%로 가장 컸던 반면, 증가품목 중에서는 과학광학기기의 증가폭이 8.2%로 가장 큼
- 엔저하에서도 일본의 수출이 좀처럼 늘지 않는 데는 과거 엔고기간 중 해외생산증가로 현지생산에 의한 수출대체, 환율변동에 의한 수출가격전가(달러화표시 수출가격 인하)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

< 2014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4.5월			2014.6월			2014.상반기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1	자동차	7,596	-4.3	-16.8	9,202	0.9	21.1	51,486	4.5	-6.2
2	철강	3,248	-1.4	6.1	3,329	-0.4	2.5	19,409	2.7	2.0
3	반도체등 전자부품	2,853	-5.2	-3.5	2,901	-8.7	1.7	16,919	-0.6	-8.6
4	자동차부품	2,581	-7.3	-16.7	2,819	-3.2	9.2	16,745	-0.7	-6.4
5	과학광학기기	1,883	1.8	-3.0	1,971	3.5	4.7	11,385	8.2	-2.3

자료: 일본 재무성

< 2014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4.5월			2014.6월			2014.상반기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1	미국	10,157	-2.8	-10.0	11,072	-2.2	9.0	64,641	4.0	-3.7
2	중국	10,497	0.4	-4.2	10,959	1.5	4.4	63,329	8.5	-6.7
3	ASEAN	8,564	-5.5	-7.8	9,015	-7.1	5.3	52,903	-1.9	-2.6
4	EU	6,060	14.5	-4.4	6,006	6.4	-0.9	37,013	12.6	-0.4
5	한국	4,219	-8.4	-6.0	4,222	-7.0	0.1	26,576	-3.9	-3.2
6	대만	3,383	-2.9	-6.4	3,503	-9.1	3.5	20,593	0.7	2.1

자료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소비세인상의 영향 감소 및 에너지 수입증가로 전월보다 증가

- '14.6월의 수입은 5월보다 4.6% 증가, 전월의 -5.3% 감소에서 크게 반전
 - 수입수량도 전월 대비 2.3% 증가
 - 에너지 수입의 증가와 소비세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영향 감소가 수입증가의 주된 원인
- 수입액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, 액화천연가스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의류 및 동부속품, 석유제품 순으로 전월에 비해 변동이 없는 가운데, 모두 증가
 - 석유제품과 원유의 수입증가율이 각각 15.3% 및 등 12.4%로 높은 편
- 주요 수입대상 지역·국가 중 한국과 ASEAN으로부터 수입은 감소한 반면, 여타 국가·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
- 한편, 2014년 상반기 수입은 42.3조엔으로 전기 대비 0.4% 증가
 - 품목별로는 감소한 품목에서는 의류·동부속품의 수입 감소폭이 20.7%로 가장 컸던 반면, 증가품목중에서는 액화천연가스의 증가폭이 9.8%로 가장 큼

< 2014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4.5월			2014.6월			2014.상반기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1	원유	9,446	-15.1	-15.4	10,621	8.3	12.4	72,704	5.1	-0.8
2	액화천연가스	5,638	3.0	-12.6	5,837	7.6	3.5	39,067	11.6	9.8
3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188	7.7	-5.0	2,326	5.5	6.3	14,196	29.4	5.3
4	의류·동부속품	2,060	-10.2	-22.5	2,068	-1.2	0.4	14,483	1.9	-20.7
5	석유제품	1,916	-5.6	0.7	2,210	35.5	15.3	13,805	2.9	1.2

자료: 일본 재무성

< 2014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4.5월			2014.6월			2014.상반기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기비
1	중국	14,191	-2.7	-8.8	14,679	10.5	3.4	92,540	14.0	-3.0
2	ASEAN	9,516	-1.1	-2.4	9,457	4.1	-0.6	61,082	9.7	3.2
3	EU	6,528	5.7	-0.8	6,528	6.8	0	40,594	12.1	0.7
4	미국	6,112	-0.5	6.2	6,294	6.8	3.0	36,790	12.2	4.0
5	호주	3,918	-12.8	-8.0	4,039	-2.9	3.1	25,072	4.3	-2.6
8	한국	2,833	-0.7	0.2	2,789	9.0	-1.6	17,573	4.5	-3.0

자료: 일본 재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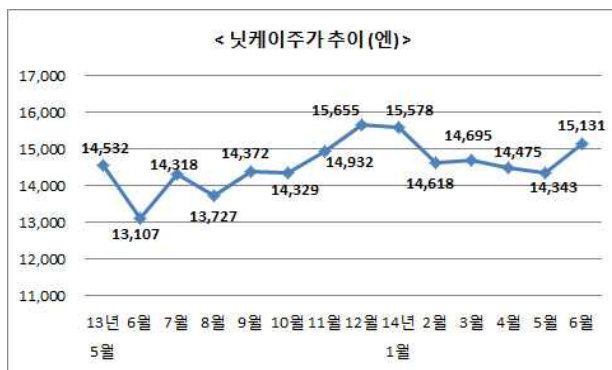
3. 고주가 · 저금리 · 엔저

□ (주 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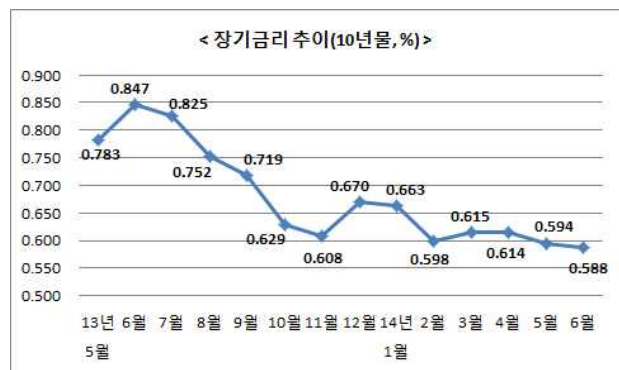
- ‘14.6월 평균 주가는 미국 주가상승의 영향 등으로 전월보다 5.5% 상승한 15,131엔
- ‘14.7.25일 기준으로는 15,458엔

□ (금 리)

- ‘14.6월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과 유럽의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.0%p 하락한 0.588%
- ‘14.7.24일 기준으로는, 0.520엔으로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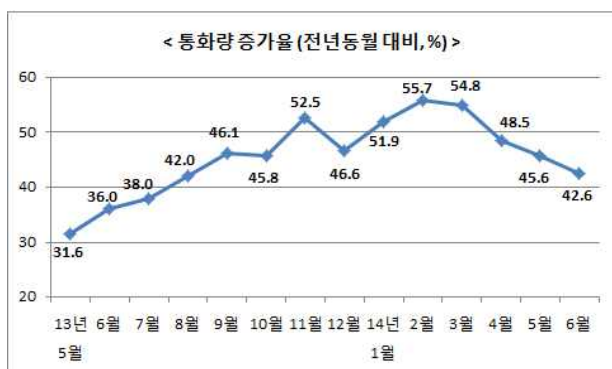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경제신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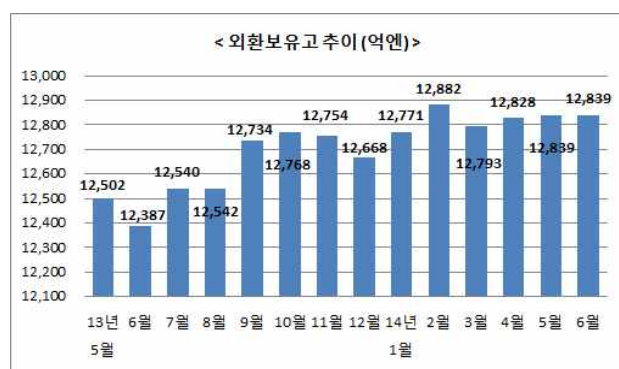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상호증권

□ (통화량)

- ‘14.6월 머니트리베이스(평잔)기준,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42.6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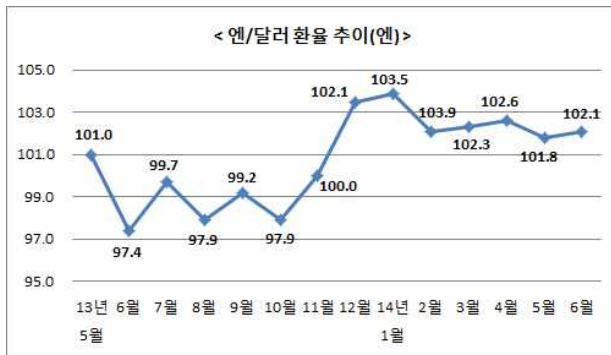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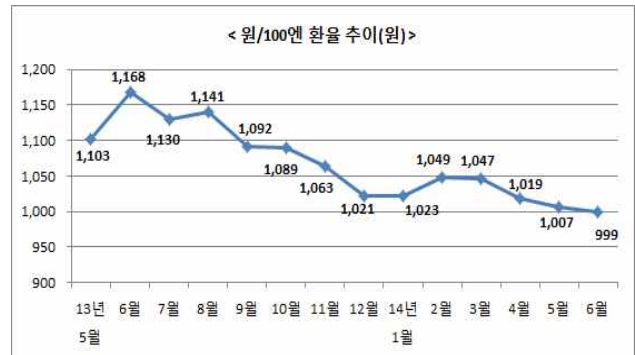
자료: 재무성

□ (환 율)

- ‘14.6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102.1엔으로 5월보다 0.3% 엔저
- ‘14.7.25일 기준으로는 101.8엔, 미국 금리의 하락영향으로 다시 소폭 엔고
-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융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상승, 미국의 경기회복,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한 일본 경기의 일시적인 침체 영향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
- ‘14.6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99원으로 5월의 1,007원에 비해 0.8% 엔저·원고



자료: 일본은행



자료: 한국은행

4. 해외직접투자, 증가로 반전

□ (동 향)

- ‘14.5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7,356억 엔으로 전월대비 20.7% 증가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기준, 억엔, %) >

		2013	2014				
			1월	2월	3월	4월	5월
금 액		131,946	12,581	6,339	7,376	6,096	7,356
증가율	전기비	34.9	-27.5	-49.6	16.4	-17.4	20.7
	전년동기비	34.9	52.8	56.7	-21.0	-59.4	-18.4

자료: 일본 재무성

○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

- 對 미국 직접투자는 전월의 90.3%의 감소에서 1,277%의 증가로 크게 반전

-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對 중국 투자는 13.9% 증가한 반면, 對 한국 투자는 92% 감소

<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 %) >

	2013년	2014.4월			2014.5월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월비	전년동월비		전월비	전년동월비
대세계	131,946	6,096	-17.4	-59.4	7,356	20.7	-18.4
아시아	39,294	2,081	-34.4	-54.8	1,520	-27.0	-57.3
중 국	8,855	418	-1.4	-55.7	476	13.9	-37.9
한 국	3,209	187	-55.4	-53.8	15	-92.0	-89.8
북 미	45,698	401	-75.9	-84.4	2,001	399.0	-0.5
미 국	42,933	140	-90.3	-93.7	1,928	1,277.0	-0.9
중남미	9,902	1,270	-	-226.5	355	-72.0	-43.0
유 럽	31,567	1,656	2.1	-76.3	3,135	89.3	9.7
대양주	5,895	486	-58.2	-5.6	-34	-	-

자료: 일본 재무성

□ (특징 : 2013년 이후)

○ 일본 재무성에 의하면, 2013년 말 기준,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잔고는 118조 엔으로 처음으로 100조 엔을 상회

-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으로 '13년 신규투자가 과거 최고를 기록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, 금융 등 비제조업(LIXIL그룹, 소프트뱅크 등의 대형투자)이 투자를 견인

- 반면, 대중국 투자는 현지 최저임금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, 중일관계 악화로 3년 만에 감소

○ M&A형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, '13.4월~'14.3월 기간 중 521건으로 최고치 기록

Ⅲ. 일본의 주요 정책

1. 해외사업 지원전략

□ 배경

- 6월 24일 발표된 2014년판 통상백서에서,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,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내외환경정비의 중요성을 강조
-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도성장기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재구축
 - 구체적으로는 규모의 확대와 다양성 강화, 사업속도를 양립시킨 새로운 가치창조패턴에 대응한 비즈니스모델의 재구축이 필요
 - 특히 중견·중소기업 분야에서 전문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높은 세계시장점유율과 수익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니치탐기업 등,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
- 일본정부로는 이와 같은 글로벌니치탐기업의 수출촉진 및 해외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성장기회를 확대하도록 FTA 추진, 신흥국전략, 대내 직접투자 촉진 등 3가지 해외사업지원전략을 추진

□ 주요 내용

① FTA망 구축

- 기업들의 국제적 전개를 위한 사업환경을 정비하여 성장시장을 획득
 - TPP뿐만 아니라 RCEP, 한중일 FTA/일본EU FTA 등을 다면적으로 추진, 무역상대국의 대부분을 커버하는 FTA망을 구축
- FTA
 - 타국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무역의 FTA 비율을 2018년까지 70%로 끌어올림

○ WTO

- FTA체결과 병행하여 세계 통상시스템의 기반인 WTO 교섭을 활용
- 특히, 소수 유력국가들간 교섭(플루리교섭)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유효한 접근이라는 점에서, ITA(정보기술협정) 확대, 새로운 서비스무역협정(TiSA), 환경물품 등을 적극 추진
-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조치에 대해서는 WTO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

② 신흥국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

○ 신흥국시장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시장을 개척

- 일본기업의 해외사업지원, 인프라수출, 진출상대국으로부터 자원공급 확보 등 3가지 유형을 각국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

○ 중국·ASEAN

- 일본계 기업 수 약 3만개 사
 - 일본계 제조업이 산업집적을 형성하고 있고 시장존재감도 높은 편이나, 한국과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어 서플라이 체인의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가 필요
 -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시장 확보 의의가 큼
- 완전(full) 진출
 - 이미 진출한 분야에서 가일층의 경쟁력 강화
 -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은 산업(쿨 저팬 등)분야에서 시장 획득

○ 서남아시아, 중동, 러시아·CIS, 중남미

- 일본계 기업 수 약 3천개 사
 - 부유층·중간층 기반이 커지고 있는데다 시장규모도 크고 성장률도 높으나 일본기업의 진출은 부진한 편
 - 자원보유국들도 많아 자원 확보 관점에서 폭넓은 경제관계 구축·강화를 필요로 함
- 크리티컬 매스(critical mass :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충분한 양) 도달
 - 유망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과 일정량의 시장점유율 확보
 - 투자확대·기술협력을 통한 자원국과의 관계 강화

○ 아프리카

- 일본계 기업 수 약 5백개 사

- 인구증가 및 시장 확대 전망이 밝아 조기진출의 필요성이 크나, 일본은 부전패 상태
- 자원국도 많아 자원개발 및 관련인프라 준비가 필요

- 성공사례 창출

- 하나라도 성공사례를 창출
- 자원·인프라 관련 개별 프로젝트 획득

③ 대일직접투자 촉진

○ 우수한 전문 인력을 유치, 일본의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가속화

- 투자인센티브와 발굴·유치·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, 해외기업경영자들로부터의 요망 등을 수렴,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반영

- 정부의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「대일직접투자 추진회의」 설치
- 상품개발을 위해 규제·구조개혁 등의 추진 및 특구 활용
- 대내직접투자의 안전 발굴·유치활동 강화

□ 시사점

○ WTO의 다자간 무역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차선택으로서 FTA를 가속시키는 것은 수출기업들이 직면하는 상대적인 무역장벽을 낮추어줌으로써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

○ 성장유망시장인 신흥국시장을 대상으로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, 진출기업의 상황, 제3국 기업·상대국기업 등과의 경쟁 환경 등,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한 후 중점분야를 선별하여,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

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1. 대일무역적자 확대로 반전

□ (총 합)

- '14.6월 대일무역적자는 18억 달러, 확대로 반전
 - 대일 수출은 26억 달러, 대일 수입은 44억 달러

<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단위: 억달러,%) >

	2014.5월			2014.6월			2014.상반기		
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대일수출	27	-0.8	-0.6	26	-9.3	-5.5	162	-5.4	-7.8
대일수입	43	-12.1	-11.5	44	-6.6	1.0	268	-12.2	-9.3
무역수지	-16	-6	-6	-18	0	2	-106	-28	-14

주)수출, 수입의 증감은 %, 무역수지의 증감은 억달러
자료: 한국무역통계

- 한편, 2014년 상반기 대일무역적자는 106억달러로 전기비 14억달러 축소

□ (대일 수출)

- '14.6월의 대일 수출은 5월보다 5.5% 감소
 - 그러나 동 기간 중 한국의 총수출이 5.1% 증가, 일본의 수입도 4.6%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시사

	대일 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4. 6월	-9.3	-5.5	2.5	5.1	8.4	4.6
2014.상반기	-5.4	-7.8	2.5	0.5	10.0	0.4

- '14.6월의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, 5월보다 증가한 품목은 4개 품목, 감소한 품목도 4개 품목

- 증가품목은 증가율 순위로 석유화학제품(27.9%), 농산물(10.2%), 기계요소공구·금형(2.0%), 수송기계(1.9%) 순
- 감소품목은 감소율 순위로 산업용전자제품(-45.2%), 광물성연료(-11.5%), 금속광물(8.2%), 전자부품(1.5%) 순

< 대일 수출 10대 품목 (단위: 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4.5월			2014.6월			2014.상반기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	총계	2,710	-0.8	-0.6	2,561	-9.3	-5.5	16,191	-5.4	-7.8
1	광물성연료	479	36.2	5.3	424	-31.5	-11.5	3,240	-24.8	-22.6
2	철강제품	342	23.3	0.3	342	25.0	0.0	2,110	23.5	6.4
3	전자부품	206	-9.5	-1.4	203	-19.3	-1.5	1,241	-9.3	-14.9
4	산업용전자제품	305	-31.0	7.4	167	-47.0	-45.2	1,391	-12.4	-16.9
5	석유화학제품	129	-29.7	-9.8	165	-0.6	27.9	787	-19.7	-2.6
6	정밀화학제품	128	6.2	2.4	128	-4.5	0.0	754	3.6	1.1
7	수송기계	103	-0.7	0.0	105	21.6	1.9	643	17.1	5.1
8	기계요소공구·금형	99	18.9	7.6	101	31.9	2.0	563	16.9	14.9
9	농산물	88	5.1	-3.3	97	8.0	10.2	549	7.3	-2.1
10	금속광물	97	-26.3	-17.1	89	-18.5	-8.2	531	-17.4	-19.2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○ 한편, 2014년 상반기 대일수출은 162억달러로 전기비 7.8% 감소

- 품목별로는 감소한 5개 품목 중 광물성연료의 수출 감소폭이 22.6%로 가장 컸던 반면, 5개 증가품목 중에서는 기계요소공구·금형의 증가폭이 14.9%로 가장 큼

□ (대일 수입)

○ '14.6월의 대일 수입은 5월보다 1% 증가

- 동 기간중 총수입이 0.3%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4년 6월	-6.6	1.0	4.1	-0.3
2014년 상반기	-12.2	-9.3	2.6	1.6

- '14.6월의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, 5월보다 증가한 품목은 4개 품목, 감소한 품목은 6개 품목
 - 증가품목은 증가율 순위로 산업용전자제품(23.7%), 정밀화학제품(6.6%), 전자부품(3.6%), 산업기계(0.5%) 순
 - 감소품목은 감소율 순위로 정밀기계(-13.8%), 수송기계(-6.5%), 철강제품(-5.2%), 플라스틱제품(-3.3%), 기초산업기계(-2.7%), 석유화학제품(-0.9%) 순

<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단위: 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4.5월			2014년 6월			2014년 상반기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	총계	4,322	-12.1	-11.5	4,366	-6.6	1.0	26,782	-12.2	-9.3
1	철강제품	709	-10.2	-7.7	672	-5.6	-5.2	4,242	-11.5	-0.2
2	전자부품	470	-19.5	-9.0	487	-13.1	3.6	2,944	-15.8	-23.5
3	석유화학제품	455	-13.9	-8.6	451	-17.2	-0.9	2,885	-18.2	-9.8
4	정밀화학제품	334	-4.0	-19.1	356	2.3	6.6	2,186	-4.1	-1.2
5	기초산업기계	291	-14.4	-9.3	283	-3.4	-2.7	1,768	-22.0	-30.8
6	산업용전자제품	228	-2.4	-16.6	282	35.5	23.7	1,515	12.5	3.0
7	플라스틱제품	242	-14.1	-6.6	234	-12.4	-3.3	1,448	-13.7	-8.8
8	산업기계	208	13.5	-7.1	209	-9.2	0.5	1,172	-2.2	-0.1
9	수송기계	216	11.9	-8.5	202	19.1	-6.5	1,232	1.4	6.2
8	정밀기계	226	8.5	-8.1	195	-0.4	-13.8	1,327	-4.8	-8.0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- 한편, 2014년 상반기 대일수입은 268억달러로 전기비 9.3% 감소
 - 품목별로는 감소한 8개 품목 중 기초산업기계의 수출 감소폭이 30.8%로 가장 컸던 반면, 2개 증가품목 중에서는 수송기계의 증가폭이 6.2%로 가장 큼

2. 일본의 대한투자, 상대적 부진

□ (동향) : '14.2분기 일본의 대한투자, 감소로 반전

- '14.2분기 일본의 대한투자는 403백만 달러로 전기 대비 46% 감소
 -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4.1%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
 - 건수로도 19.2% 감소
- 한편, 2014년 상반기 중 일본의 대한투자는 1,149백만달러로 전기 대비 14% 감소
 - 이 역시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57.8%의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
 - 건수로도 14.8% 감소
- 이같이 상반기, 2분기 모두 전체외국인 투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그만큼 최근 대일투자환경의 악화 또는 악화조짐을 반영

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(신고기준, 단위: 건, 백만달러, %) >

	2013년		2014.1분기		2014.2분기		2014.상반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의 대한투자	447 (-17.7)	2,690 (-40.8)	99 (-11.6)	746 (2.3)	80 (-19.2)	403 (-46.0)	179 (-14.8)	1,149 (-14.0)
전체 외국인투자	2,607 (-9.1)	14,548 (-10.7)	571 (-15.3)	5,062 (33.1)	583 (2.1)	5,272 (4.1)	1,154 (-9.9)	10,334 (57.8)

주: ()내는 전기 대비 증가율, 자료: 산업부, 외국인직접투자 통계

□ (최근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사례)

- 일본 스미토모세이카(住友精化)가 여수산단 중흥지구에 모두 1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, 2016년쯤 본격 가동 예정(2014.6.16)
 - 스미토모세이카는 조만간 한국 내 투자를 위해 법인을 신설하고, 연간 6만t 생산 규모의 고흡수성수지 제조시설을 착공할 예정
- 일본 베름사도 2014년 9월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의 3,300여㎡ 부지에 40억여원을 투입, 공장 착공예정(2014.7.16)

□ (시사점)

- 한국의 투자환경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제외하면 일본의 대한투자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만한 개선점이 미흡
- 당분간 엔저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가 고노담화 검증 논란 등에 의한 한일 관계의 악화가 한일경제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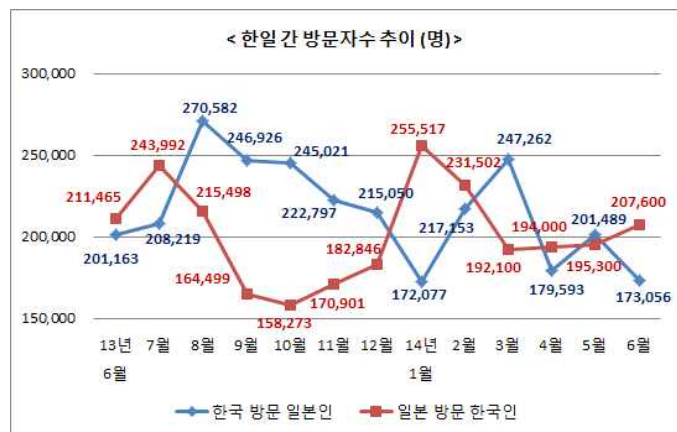
3.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 감소로 반전

□ (일본인 방한) '14.6월 일본인의 한국방문자 수 감소

- '14.6월 일본인 입국자수는 173,056명으로 5월보다 14.1% 감소
 - 이는 중국인 입국자수가 573,852명으로 11%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

□ (한국인 방일) '14.6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는 증가

- '14.5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07,600명으로 5월보다 6.3% 증가
 - 다만,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것은 일본 방사능 이슈와 한일관계의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



출처 : 한국관광공사, 일본정부관광국(JNTO)

V. 참고 자료
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(2014.6월~7월)

□ 국내기관

- 『일본식 엔고 악순환의 실체와 원고의 위험』 LG경제연구원, 2014년 7월8일
http://www.lgeri.com/publication/report/contents.asp?pyear=2014&ctype=g&grouping_seq=01040200_479
- 『최근 일본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평가』 한국은행, 2014년 7월4일
<http://www.bok.or.kr/broadcast.action?menuNaviId=2229>
- 『일본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』 한국은행, 2014년 7월3일
<http://www.bok.or.kr/contents/total/ko/boardView.action?boardBean.brdid=107494&boardBean.menuid=2229&boardBean.rnum=3&menuNaviId=2229&boardBean.cPage=1&boardBean.categorycd=0>
- 『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방위산업의 발전 전망』 산업연구원, 2014년 6월5일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8&state=view&idx=47696&ord=0

□ 일본기관

- 『잃어버린 20년이 아닌 모델전환의 20년 : 과거 최고 기업이익을 가능케 한 것』 자본시장연구회, 2014년 7월23일
<http://www.camri.or.jp/annai/shoseki/gekkan/2014/pdf/201407-7.pdf>
- 『차이나 리스크와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대응』 일본국제문제연구소, 2014년 7월11일
http://www2.jiia.or.jp/pdf/resarch/H25_China_Risk/H25_China_Risk_and_Efforts_toward_Regional_Economic_Integration.php
- 『다국적기업의 생산형태 : 중간재를 포함시킨 수평형·수직형 공존 모델의 작성과 분석』 아시아경제연구소, 2014년 7월1일
http://www.ide.go.jp/Japanese/Publish/Download/Report/2013/pdf/C24_ch1.pdf
- 『생산거점의 해외이전과 에너지절약정책의 관계성에 관한 조사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2014년 7월1일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4fy/E004106.pdf

- 『일본 모노즈쿠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와 대응에 관한 조사보고서』
경제산업성, 2014년 7월1일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4fy/E004105.pdf
- 『자원에너지수입대국으로서 일본의 환리스크대책에 관한 조사보고서』 경제산업성,
2014년 7월14일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4fy/E004088.pdf
- 『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중장기과제 조사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2014년
7월1일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4fy/E004087.pdf
- 『통상백서(2014)』 경제산업성, 2014년 6월25일
<http://www.meti.go.jp/report/tsuhaku2014/index.html>

2.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(7월)

일자	주요 행사 내용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세가와 경제동우회 대표 기자회견 • 중앙최저임금심의회(후생노동성)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광업소위원회(경산성)
3~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TPP 협상관 회의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(원자력규제위원회)
7~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日-EU FTA 협상 제6차 회의
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월 경기동향지수 속보(내각부) • 6월말 외환준비고(재무성) • 특정 원자력시설 감시·평가 검토회(원자력규제위원회)
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日-호주 FTA 서명
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월 소비동향조사(내각부)
1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핵연료시설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(원자력규제위원회) • 산업구조심의회 가스안전소위원회(경산성)
14~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본은행 정책위원회·금융정책결정 회의
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최저임금심의회(후생노동성) • USJ(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)에 '해리포터의 마법세계' 어트랙션 오픈
1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자력규제위원회
1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가스시스템개혁소위원회(경산성) • 7월 월례경제보고(내각부)
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(원자력규제위원회)
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베 총리,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, 日-몽골 FTA 합의(수상관저) • 경제재정자문회의(수상관저) •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(원자력규제위원회) • 5월 경기동향지수 개정치(내각부)
2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일국장급회의(서울) •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소위원회(후생노동성) •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원자력소위원회(경산성) • 특정 원자력시설 감시·평가 검토회(원자력규제위원회) • 6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(일본정부관광국)
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월 무역통계(재무성)
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재정자문회의(수상관저) • 6월 소비자물가지수(총무성)
2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日-카리브공동체(CARICOM) 정상회의 • 日-캐나다 FTA 협상 회의 • 중앙최저임금심의회소위원회(후생노동성) • 일본의 '돈 버는 힘' 창출연구회(경산성)
2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최저임금심의회(후생노동성) • 6월 완전실업률(총무성) • 6월 유효구인배율(후생노동성)
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자력규제위원회 •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제도설계 워킹그룹(경산성) • 6월 광공업생산지수 속보(경산성)
3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(원자력규제위원회)